

어린이용 전자책 개발, 어디까지 와있나

CD-ROM 등 신제품 잇달아 출시... 개발여지 무한하나 외국과의 경쟁 부담도

멀티미디어시대에 출생하여 각종 영상매체의 세례를 받고 자란 요즘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는 부모만큼이나 친밀하고 친구보다도 더 가깝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의 컴퓨터 다루는 기술은 타고난 듯 천부적이고 본능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게임물이 주류지만 컴퓨터와의 친화력에 관한 한 30대의 엄마보다도 5세 꼬마가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요즘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며 책들 들이민다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을 뒤떨어진 부모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 엄마·아버지들이 자랄 때처럼 동화책이 '지상의 유일한 양식'이던 시절은 끝이 난 듯 보인다. 요즘 아이들에게 활자로 된 책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매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지식 습득의 매개(통로)는 아닌 것이다.

교육용 교재로 각광받고 있는 CD-ROM

오디오 북, 카세트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비디오 등 첨단 어린이용 교재·놀이 도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아이들의 교재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들라면 단연 CD-ROM일 것이다. CD-I, CD-G 등 첨단 기술을 응용한 어린이 교재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국내 어린이용 CD-ROM 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아동용 CD-ROM 수는 모두 40여종. 국내에서 개발된 총 CD-ROM의 수가 4월말 현재 90여개에 이르니 그 절반에 가까운 수가 어린이용이 차

어린이용 교육교재로 CD-ROM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시판하고 있는 어린이용 CD-ROM 수는 모두 40여종. 대체로 영어학습 교재나 교육용으로 많이 개발돼 있는데, 옛날이야기를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담은 동화 CD-ROM은 수는 적지만 상당히 호평받는 제품. 외국산 CD-ROM에 아직 뒤지기는 하나 관련업계의 도전은 뜨겁기만 하다.

지하고 있는 셈이다. 게임형식의 학습프로그램과 재미있게 전래동화를 구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CD-ROM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영어학습 및 교육교재 용으로는 KBC정보시스템(주)의 「까치선생」 「영어단어 그림사전」(근간) 「재미있는 가나다라」(근간), 솔빛조선키미디어의 「즐거운 놀이방」 대교컴퓨터의 「내친구 영어박사」, 세광데이터테크의 「영어새 영어 첫걸음」 「세모와 네모」(근간) 「한글놀이」(근간), 제이씨현시스템의 「어린이노래영어」 「국민학교 산수 교실」 「국민학교 영어교실」 「국민학교 국어」(근간), 삼성출판사의 「매직스쿨 영어나라」, 금성소프트웨어의 「go go!! 우리별」 등이 있다.

교양·오락용으로는 동아출판사의 「두기의

하루」, 세광데이터테크의 「옛날 옛날에」(6) 「이솝이야기」(6) 「명작동화」(4, 근간), 교학사와 소프트웨어제작사인 레이스시스템과 하드웨어업체인 옥소리가 공동 합작한 「컴퓨터 만화」(3) 「이야기나라」(2) 「전래동화」(2) 「아라비안나이트」(2, 근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제작을 이미 마치고 곧 시판을 앞두고 있는 제품도 있고 올 안으로 시중에 내놓기 위해 작업중인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전한다.

솔빛미디어의 서희경 씨는 어린이용 CD-ROM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많이 개발되는 이유로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뉴미디어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임을 강조한다. 특히 "상호대차적인 학습과 고화질의 그래픽·오디오·비디오의 오락이 겸비된 CD-ROM의 기능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다양하게 유발시킴으로써 탁월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장점을 설명한다.

즉, CD-ROM은 수학의 경우 활자책보다 훨씬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육면체나 삼각뿔을 설명할 때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 자유자재로 입체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훨씬 높고 그에 오락적 요소까지 가미하여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 간략한 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을 것이며, 따라서 CD-ROM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국산 어린이용 CD-ROM으로 까다로운 판매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가 KBC정보시스템(주)에서 만든 「까치 선생」, 국민학교 4, 5,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동물원, 넓은 정원, 교실 화면이 선택에 따라 펼쳐지면서 동식물의 이름과 영어단어가 연결되고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단어를 익힐 수 있게 꾸며져 있다. 물론 이 정도는 여느 영어학습 CD-ROM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구성이 다채롭고 까치가 화면 위를 날아다니며 다음장을 연결시켜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며 무엇보다도 장면 전환 시간이 짧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다.

40여종 현재 시판중, 동화 CD-ROM 인기

피아노 악보로 유명한 음악도서 전문출판사인 세광출판사의 자회사 세광데이터테크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용 CD-ROM 타이틀을 내놓은 곳. 교육위원회 색동회 YMCA 등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옛날 옛날에」 「이솝이야기」 「명작동화」 세 시리즈로 꾸며진 '이야기 동산' 제품들은 올초 한 제품을 시중에 내놨는데 불과 2, 3개월만에 1천매를 팔고 5천매의 재판에 들어가는 등 어린이들의 호평을 받아 "외국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일단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제작사측은 전한다.

특히 세광데이터테크가 곧 시판예정인 '열린 교육' 시리즈 가운데 '세모와 네모'는 수학의 '도형' 부문을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꾸민 국민학교 저학년용 CD-ROM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아이터미로는 제품이 나온 바 없는 창작물"로 기대를 모으는 상품이다. 한 화면에서 수십개의 상황을 연결해 볼 수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저/김영자·김건 공역 / 신국판 / 372면 / 4,500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멸종의 위기 앞에서 인류에게 제시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자연계 최고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현존하는 세계관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켄 저/김영자 역 / 신국판 / 308면 / 4,200원
지성사에 획기적 이정표를 제시한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금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적 유산. 쿨은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주의적 과학관을 뿌리째 뒤 흔들어 놓으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과학혁명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이테크 달걀



- '93 과학기술도서상 과학기술처장관상 수상작
- '93 문화체육부 추천도서
현원복 저 / 신국판 / 314면 / 5,500원
첨단 기술, 그 무궁무진한 신세계를 열어본다. 로봇이 피자를 굽고 수술을 한다. 유전자 지도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공혈액, 인공피부, 인공심장 등이 보편화되면서 생체공학 시대가 열린다. 퍼지 이론이 새 물결을 몰고와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맞춤 쌀, 홀로그램, 사탕과자 등 하이테크 식품들도 등장한다.

동아출판사 ☎861-4818



CD-ROM이 어린이 교육교재로 각광받고 있다.

있고, 그중 몇 개의 상황에서는 신나게 게임도 할 수 있는 등 오락적 요소도 풍부히 가미돼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선택해보며 이 「세모와 네모」를 마스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 내용이 단조로와 불과 며칠 만에 싫증이 나고 미는 국산 CD-ROM의 단점을 극복, 어른이 보아도 무척 흥미롭다.

이밖에도 노래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든 CD-ROM 제품들도 나와 있다. 롯데전자(주)와 멀티미디어 제작사인 제이씨현시스템(주)이 합작하여 만든 「어린이 노래 영어」는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외국의 동요·민요들을 귀여운 화면에 실어 내보낸다. 솔빛미디어가 제작한 「즐거운 놀이방」의 「노래놀이」는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가사와 악보를 화면에 띄워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하면서 피아노 건반으로 연주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CD-ROM 안에는 그 외에도 「산수놀이」 「카드놀이」 「그림그리기」 「영어놀이」 등 6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말하고 움직이는 주인공과 어린이가 대화하듯 꾸민 것」이 특징이라고.

어린이 CD-ROM 제품들은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직접 내용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와 소프트웨어사가 내용과 기술을 합작하여 만들기도 한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교재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프로그램 제작기술이 적절하게 결합될 때에만 비로소 질 좋은 교육용 CD-ROM이 생산될 것은 당연한 일, 「빌트인 CD」의 박영수씨는 “수준높은 교육용 CD-ROM의 제작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기술에 전문교육인과 전문출판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

한다.

현재 시판되는 국내 어린이용 CD-ROM 한 장의 가격은 25,000원에서 60,000원선, 최소한 386이나 486의 컬러모니터에 20~60만원대의 CD-ROM드라이브를 달아야 비로소 작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6종의 어린이용 CD-ROM을 시판하고 있는 하드웨어업체 목소리의 경우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목소리 카드’를 사서 컴퓨터에 내장시켜야만 비로소 작동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더 있는 편이다. 또한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 작동에 필요한 컴퓨터 내의 환경을 만든다거나 익숙해지기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어학습 교재에 지나치게 편중

물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국산어린이용 CD-ROM의 수준은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판매업자들은 너무 단순하여 닌텐도 등 외국 게임물에 익숙한 아이들의 흥미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기에는 부족한 제품이 적지않다고 한다. 실제 용산전자상가 내에 있는 한 CD판매점에는 일요일이면 어린이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광고를 보고 사러왔다가 외국것을 보고는 다들 그것에 끌리고 만다”고 전한다.

외국것의 반응이 상당하자 모 회사는 외국 의 잘 만들어진 아동용 CD-ROM을 20억 달러라는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 수입했으나, 영어자막 부분을 한글로 바꾸자 실행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시판할 수가 없자 돈만 들고 계획을 수포로 돌린 일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자책은 종이책과는 달리 단순한 번역으로 되지 않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데 관련업계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요망된다 하겠다.

업계관계자는 “아직은 창의력과 기술구현의 면에서 선진 제품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자인한다. 또한 한 판매업자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학습물의 경우처럼 한 회사가 시판해 반응이 좋다 싶으면 이 회사 저 회사가 너도나도 뛰어들어 단일 아이터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서로 분야를 특화하거나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단점을 계속 보완 ‘버전업’시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발중인 아동용 CD-ROM들도 적지 않은데,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특히 올해반기에는 상당수의 어린이용 CD-ROM 타이틀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논리시리즈로 돌풍을 일으켰던 사계절출판사가 「논리학습 시리즈」를 CD-ROM화 할 계획이며 대교, 세광데이터테크, 동아, 삼성출판사 등 업체들은 다양한 계획을 준비중이다. CD-ROM의 수준은 단순히 제작기술만 있어서도 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 애니메이션의 수준, 교육방법의 다양화까지 총체적인 것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관련업계 사람들은 지적하는데, 외국제품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호간의 동시적인 발전은 필수적인 셈이다.

—정혜옥 기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아이들도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쟁, 공해, 텔레비전의 홍수, 인종 차별, 노인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사랑, 우정, 평화, 자연의 아름다움, 창조 의 신비, 고통의 의미를 깨우쳐 갈 것입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3 비릴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

E. 산단게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운 옮김/3,000원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리아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11 물방울의 추억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R.M. 룬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4 뇌 속으로의 여행

F.B. 니카쎌오 지음/김홍래 옮김/2,500원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쎌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6 가난뱅이 죠니와 아르니카

E. 라이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18 아프리카 동화

아지리안, 카넬렐, 워움/노재운 옮김/3,000원

19 두 임금님

F.B. 니카쎌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20 낡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윤희 지음/4,000원